

ETF Strategy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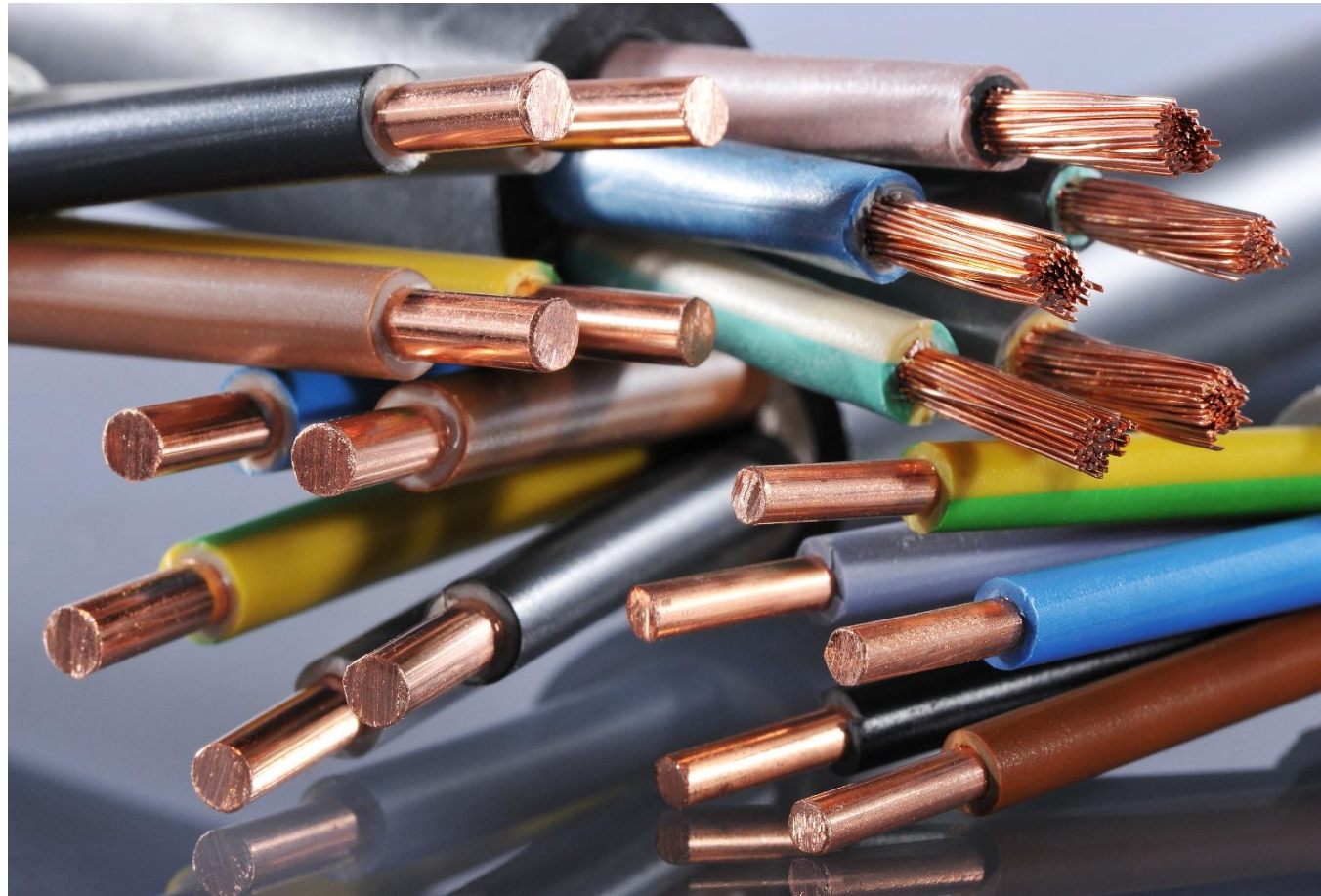
Bi - Weekly #131 | 2026.8.19

구리 투자, ETF [3]

신고가, 신저가 ETF

ETF 투자전략

ETF/파생 강승철 Tel. 02)368-6153_ buykkang@eugenefn.com



SUMMARY

커머디티 지수 2008년 이후 최고. 구리 가격 사상 최고 수준 근접

원자재: 블룸버그 상품 지수(Bloomberg Commodity Index)는 유가 하락으로 5월 고점 대비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와 AI 투자 붐(bloom)/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발행,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금리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원자재(commodity)는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LME 구리 가격은 연초 이후 16% 상승해, 톤당 1만 4,000달러를 상회한다. 작년 10월 이후 톤당 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2021~2022년과 2024년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가 수준을 돌파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real) 기준으로도 구리 가격은 금융위기 후인 2011년 기록했던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 톤당 1.5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실질 기준으로도 1974년 이후 5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된다.

구리 수요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전기 사용의 증가”다. 전력의 생산·송전·사용 전 과정에 구리가 들어간다. S&P Global은 2040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가 약 50% 늘어날 것으로 본다. AI/데이터센터 투자 급증 외에도 에너지 전환·확충(송배전 인프라 교체 및 확대) 수요, 국방(defense) 수요 증가가 구리 수요 증가를 견인한다.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5년 2,800만 톤에서 2040년 4,2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현재 계획된 투자 외에 의미 있는 공급 확장이 없으면 2040년 약 1,000만 톤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SUMMARY

Tiger 구리실물, 전력기기·전선 ETF

자산 일부를 금·구리 등 원자재에 배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위험에 대한 헤지, 그리고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을 분산하는 수단이 된다. 구리 실물에 투자하는 ETF(Tiger 구리 실물)는 보유,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

전력기기·전선 ETF: 전력 수요 증가는 전력기기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전선 기업의 경우 구리 가격 상승이 매출 증가와 재고평가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표 전력기기 ETF 편입 상위 기업들의 실적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6~7월 주가 조정으로 가격 부담도 낮아진 상태다. 보유를 유지하되, 추가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

01

** 차트 및 데이터는 8월 18일 마감 기준입니다.*

52주 신고가/신저가 ETF

1. 52주 신고가 ETF
2. 52주 신저가 ETF

52주 신고가 ETF

해운: BWET (Breakwave Tanker Shipping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제약: XPH (SPDR S&P Pharmaceutical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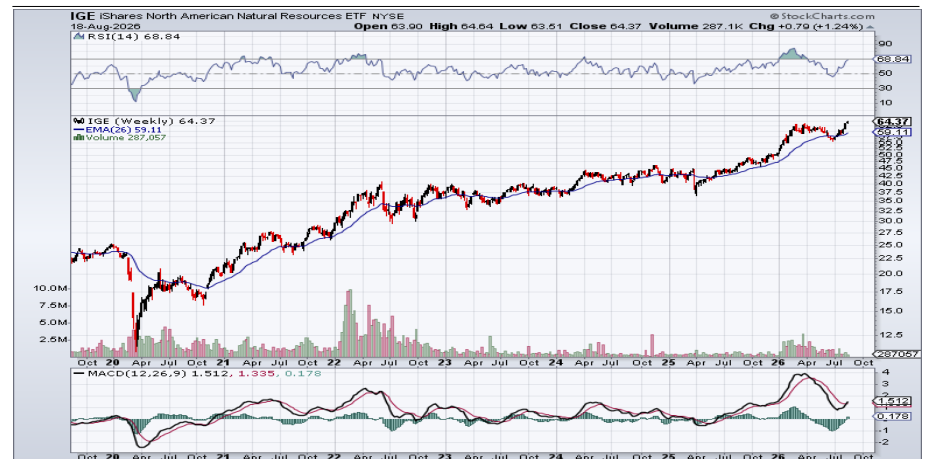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설탕: CANE (Teucrium Sugar Fund)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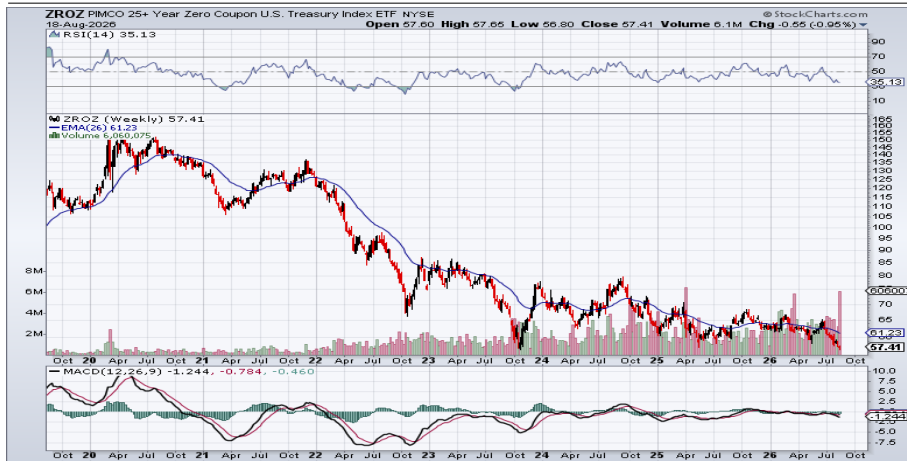
북미 천연자원: IGE (iShares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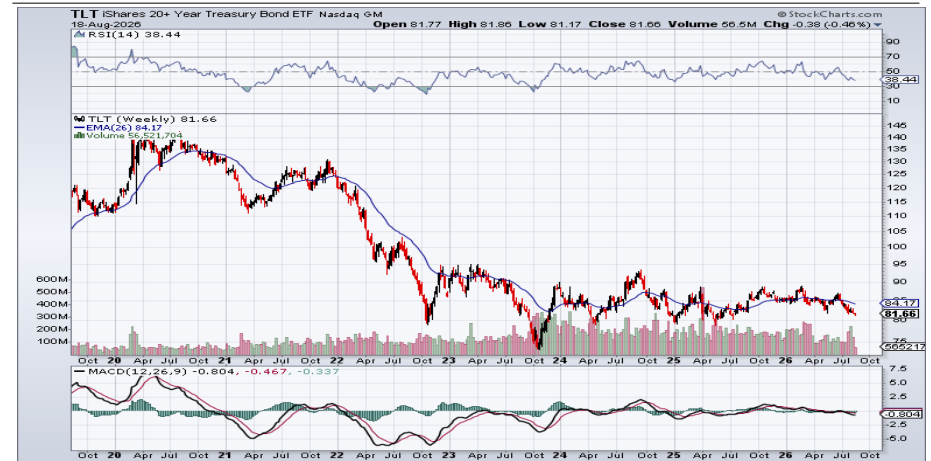
52주 신저가 ETF

미 장기국채: ZROZ (PIMCO 25+ Year Zero Coupon US Treasury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미 장기국채: TLT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02

ETF 투자전략

1. 커머디티 지수, 2008년 이후 최고
2. 구리 가격 사상 최고 수준 근접
3.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4. Tiger 구리 실물, 전력기기, 전선기업 ETF

커머디티

커머디티 지수, 2008년 이후 최고

- 블룸버그 상품 지수(Bloomberg Commodity Index)는, 유가 하락으로 5월 고점 대비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 금리 상승에도 최근 금 가격은 온스당 4,000달러에서 4,400달러로 상승
- 구리: LME 구리 가격은 톤당 1.4만\$로,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글로벌 금리가 수십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 각국 정부 재정 지출과 AI 투자 붐(boom),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배경. 원자재(commodity)는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Bloomberg Commodity index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Bloomberg Commodity index 비중(weight)

	상품	비중(%)		상품	비중(%)
에너지	브렌트유	10.4	곡물	대두	5.1
에너지	WTI 원유	8.2	곡물	옥수수	5.1
에너지	천연가스	6.1	곡물	대두유	3.4
에너지	경유(가스오일)	4.7	곡물	소맥(시카고)	3.0
에너지	난방유(ULSD)	3.7	곡물	대두박	2.6
에너지	휘발유(RBOB)	3.0	곡물	소맥(캔자스)	2.2
귀금속	금	12.6	소프트	설탕	2.8
귀금속	은	2.9	소프트	커피	2.1
산업금속	구리	6.1	소프트	면화	1.8
산업금속	알루미늄	3.5	소프트	코코아	1.5
산업금속	아연	2.3	축산	생우	3.0
산업금속	니켈	1.8	축산	돈육	1.4
산업금속	납	0.7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8/18 기준

구리(copper)

구리 가격 사상 최고 수준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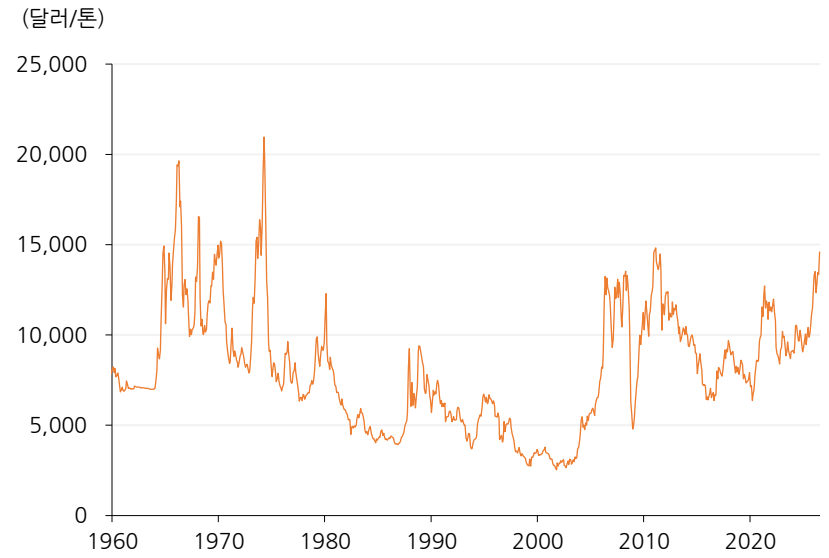
- LME 구리 가격은 연초 이후 16% 상승, 톤당 1만 4,000달러 상회
- 2025년 10월 이후 톤당 1만 달러 상회. 2021~2022년과 2024년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가 돌파
-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real) 기준으로도 구리 가격은 금융위기 후인 2011년 기록했던 최고 수준에 근접
- 톤당 1만 5,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실질 기준으로도 1974년 이후 5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됨

LME 구리 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LME 구리 가격_실질(re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연초 이후 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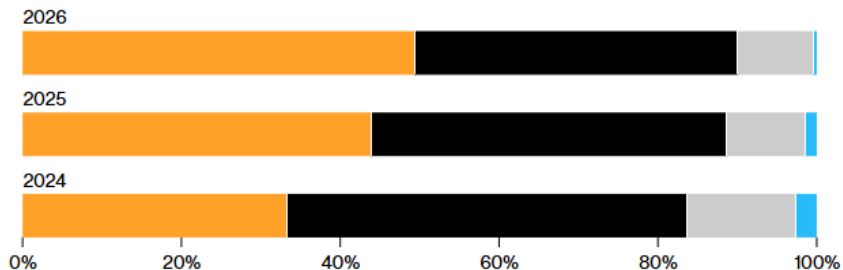
-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는 6월 말로 끝난 회계연도에 구리가 연간 기준 처음 철광석을 제치고 최대 이익원(primary profit driver)이 됐다고 발표
- BHP 구리 광산 이익은 yoy 48% 증가한 180억 달러 기록. 전체 underlying EBITDA의 54% 차지. 회사의 전체 EBITDA는 전년 대비 27% 증가함
- BHP는 연간 배당금을 주당 1.72달러로 56% 늘렸음. BHP 주가는 올해 호주 증시에서 연초 이후 40% 상승함
- 7월 취임한 Brandon Craig CEO는 구리를 “BHP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the engine that is driving BHP's growth)”으로 표현

BHP: 구리(copper)가 매출의 가장 큰 비중 차지

BHP's Increasingly Becoming a Copper Miner

Copper's share of revenue overtook iron ore in year through June

■ Copper ■ Iron Ore ■ Coal ■ Others



자료: Bloomberg. "BHP Profit Jumps on Metal Prices as Focus Shifts to Copper"

BHP 주가

(호주달러)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구리 수요

- 구리 수요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전력의 생산·송전·사용 전 과정에서 구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 S&P Global에 따르면, 2040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전력 소비는 지난 25년간 거의 정체했으나, 최근 연 2%대 성장 국면으로 전환
- 전통적 경기 연동 수요 외에 에너지 전환·확충(송배전 인프라 교체 및 확대), AI/데이터센터, 국방 수요가 구리 수요 증가 견인

구리 수요 증가: 4가지 요인

1

"핵심 경제적 수요(core economic demand)"; (전통적 경기 연동 수요, "Dr. Copper")

- 건설업(전기 배관 및 배선), 제조업(모터, 발전기, 산업용 배선 등)
- 전기 가전(냉장고, 세탁기, TV 등)
- 냉방: 에어컨 설치/사용 증가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 전력 사용 증가 → 구리 수요 증가

**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 전력 소비 증가

▶ 연평균 약 2% 성장, 2025년 연간 1,800만 톤 → 2040년 연간 2,300만 톤으로 증가 전망

2

"에너지 전환 및 추가 (energy transition and addition)" 수요

- 전기차(EV)
- 태양광/풍력 발전
- 배터리
- 송전, 배전 인프라(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 연평균 4.1% 성장, 2025년 연간 850만 톤 → 2040년 연간 1,560만 톤으로 증가 전망

3

AI, 데이터센터

-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
- 데이터센터는 전력 집약적(electricity-intensive) 시설
 - 1) 데이터센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구리의 양도 많고,
 - 2)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인프라 건설에도 많은 구리가 사용됨

▶ 2025년 연간 110만 톤 → 2040년 연간 250만 톤으로 증가 전망

4

국방(defense) 수요

- 글로벌 국방비 지출 증가
- 가격에 대해 수요가 '비탄력적(inelastic)' 성격
- NATO 회원국,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 공약
- 현대 무기체계 점점 구리 집약적으로 변화, 국방 부분의 구리 수요는 2040년까지 3배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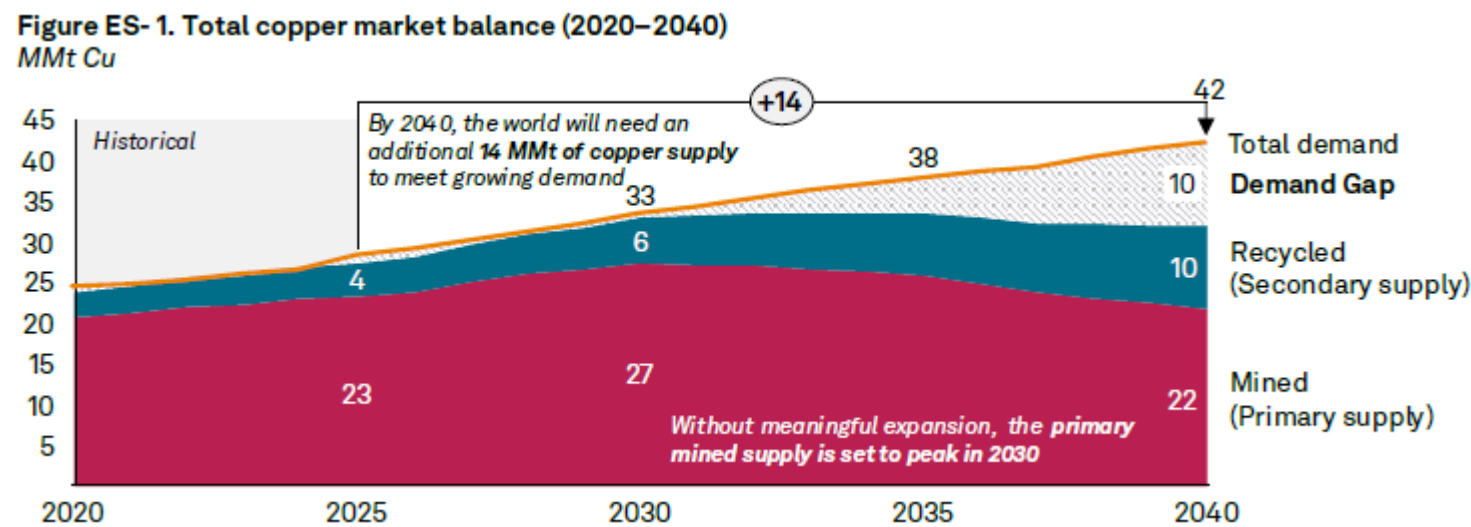
▶ 2025년 연간 30만 톤 → 2040년 연간 100만 톤에 근접해 3배 증가 전망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구리 수요 vs. 공급

-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5년 2,800만 톤에서 2040년 4,200만 톤으로 50% 증가 전망
- 현재 계획된 투자 외에 의미 있는 공급 확장이 없으면 2040년 약 1,000만 톤의 공급 부족 발생 가능(S&P Global). 2040년 예상 수요의 24%, 2025년 수요의 36%에 해당하는 규모

구리 수급 전망(Total copper market balance), 2020년~2040년



자료: S&P Global, 2026년 1월

Tiger 구리 실물

하락 시 매수 접근

- 자산 일부를 금·구리 등 원자재에 배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위험에 대한 헤지,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분산 수단
- AI/데이터센터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 사용 증가”. 구리 수요 증가 요인
- 보유 유지,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
- TIGER 구리실물(160580): 참고 보관된 구리에 대해 발행된 참고증권에 투자. 환헤지를 하지 않아 원화 기준 성과는 구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연동

Tiger 구리실물 ETF(160580): 보유 종목

종목 명	비중(%)
참고증권(구리)	97.8
COMEX 구리 선물	2.8
원화현금	2.2

자료: KOSCOM. 8/18 기준

Tiger 구리실물 ETF, LME 구리 가격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전력기기, 전선기업 ETF

양호한 실적 증가세

-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기기 기업 실적 개선 지속
- 전선 기업은 원재료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 절대적. 구리 가격 상승은 매출 증가와 재고평가이익으로 이어지는 경향
-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표 전력기기 ETF 편입 상위 기업 실적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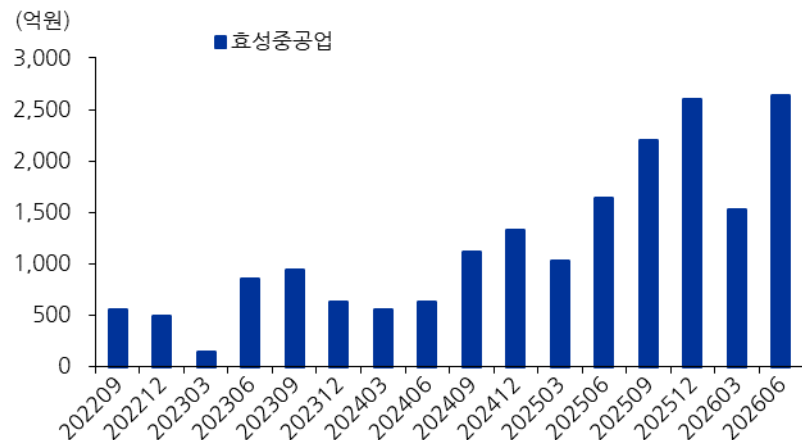
KODEX AI전력핵심설비(487240) 보유 종목

코드	종목 명	비중(%)
A298040	효성중공업	20.8
A010120	LS ELECTRIC	20.5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17.7
A006260	LS	13.5
A001440	대한전선	8.5
A062040	산일전기	6.0
A103590	일진전기	4.4
A000500	가온전선	2.3
A006340	대원전선	2.0
A229640	LS에코에너지	1.3
A033100	제룡전기	1.3
A060370	LS마린솔루션	1.3

자료: KOSCOM. 8/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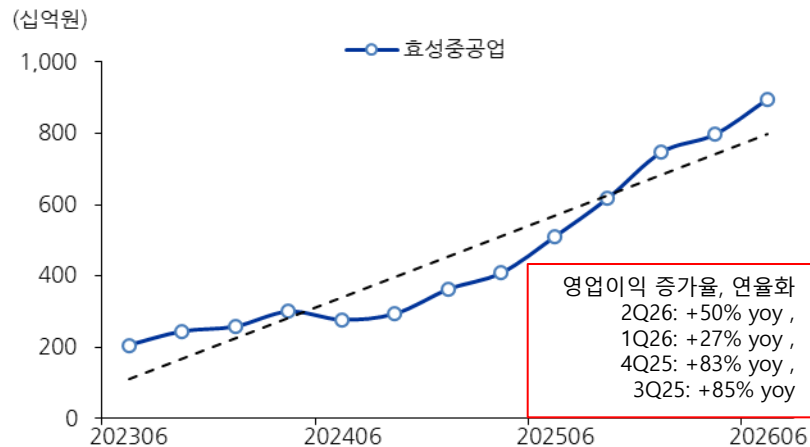
전력기기, 전선기업 ETF

효성중공업: 영업이익, 분기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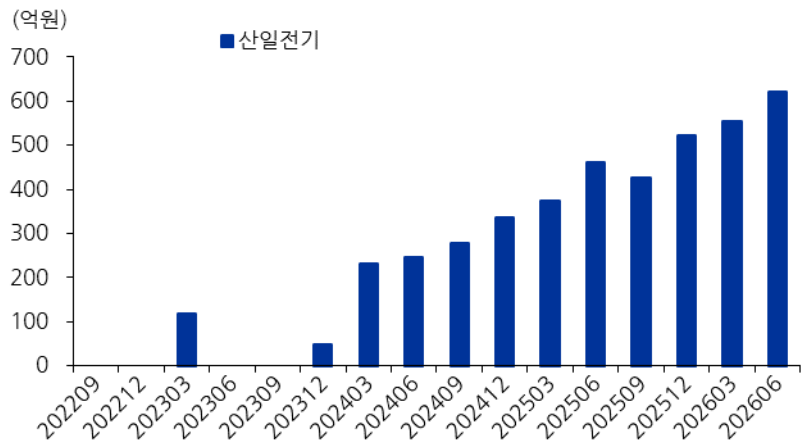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효성중공업: 영업이익(TT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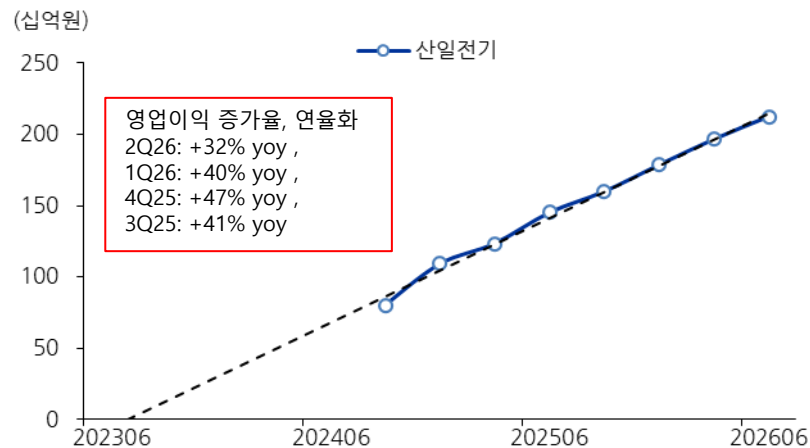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최근 4개 분기 합산(TTM) 추이. 2Q26 기준

산일전기: 영업이익, 분기 별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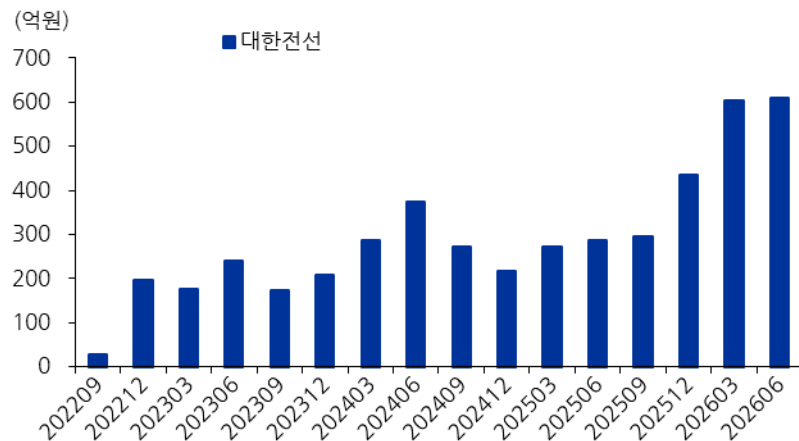
산일전기: 영업이익(TTM)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최근 4개 분기 합산(TTM) 추이. 2Q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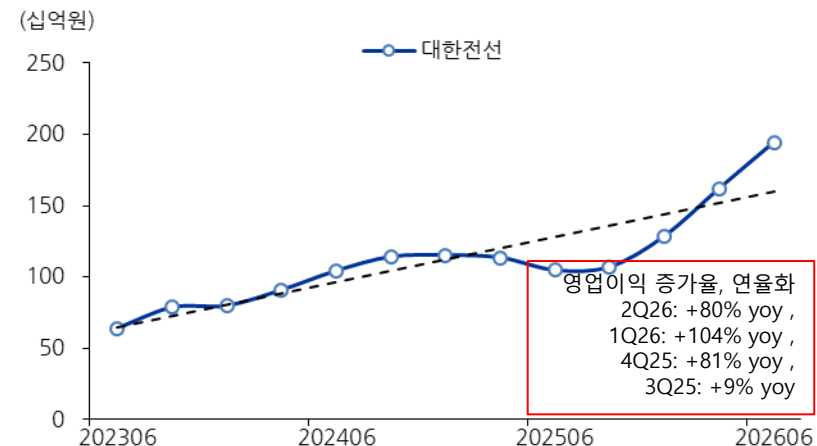
전력기기, 전선기업 ETF

대한전선: 영업이익, 분기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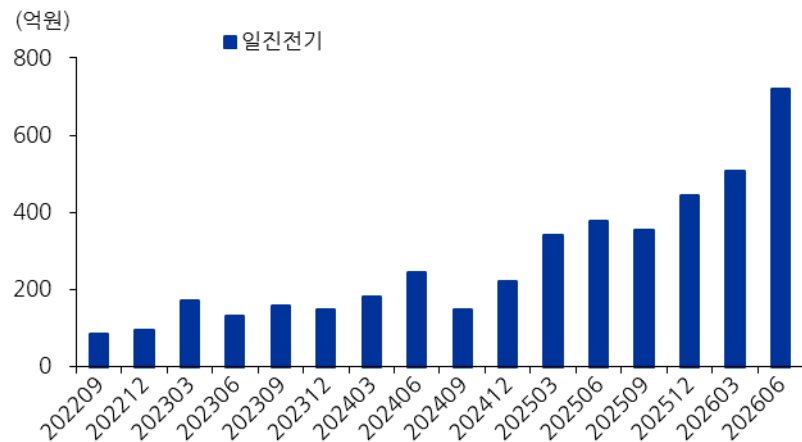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대한전선: 영업이익(TT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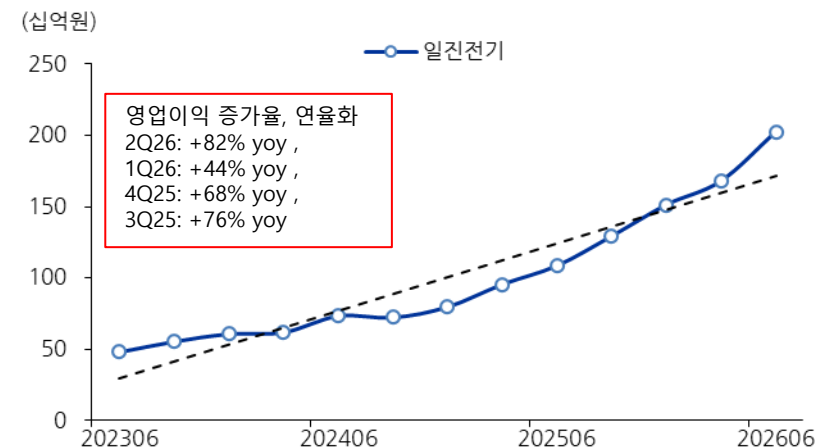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최근 4개 분기 합산(TTM) 추이. 2Q26 기준

일진전기: 영업이익, 분기 별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일진전기: 영업이익(TTM)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최근 4개 분기 합산(TTM) 추이. 2Q26 기준

전력기기, 전선기업 ETF

양호한 실적 증가세

- 전력기기 기업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평균 30% 후반 대 영업이익 증가율(연율화 한 값) 시현
- 전선기업도 평균 60%가 넘는 이익 증가율을 기록함
- 8월 현재 기준(8/18) 시가총액은 올해 예상 이익(OP)이나 최근 4개 분기 합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30배 미만 수준이어서, 이익 증가가 밸류에이션 상회하는 상황. 6월~7월 주가 큰 폭 하락과 함께 가격 부담 낮아짐(다음 페이지 이익, 시가총액 추이 참고)
- 주가 조정 이후에도 보유 유지,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 접근 가능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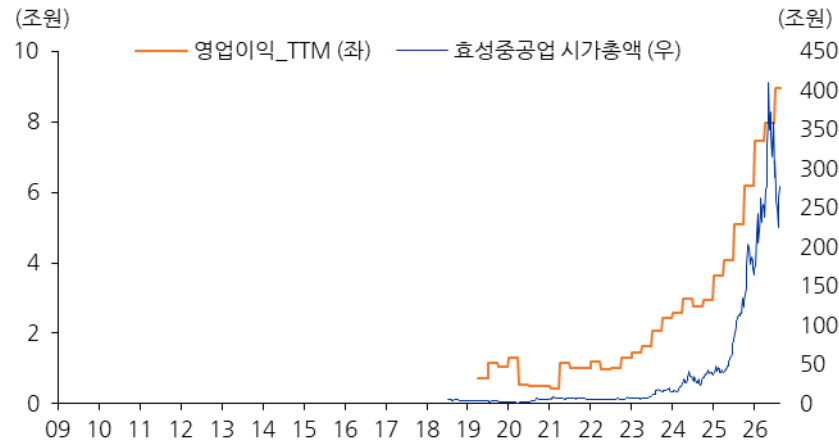
전력기기, 전선기업: 밸류에이션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OP growth	OP growth	2026AS	TTM(2Q26)
			25년 (yoy %)	26년F (yoy %)	시총/올해 OP(배)	시총/TTM OP(배)
A298040	효성중공업	278,245	106.1	49.6	24.9	31.0
A010120	LS ELECTRIC	313,500	9.4	68.0	43.8	58.5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282,970	48.8	23.7	23.0	25.4
A062040	산일전기	54,912	63.5	42.6	21.6	25.8
A006260	LS	107,172	-1.7	79.5	5.7	6.8
A001440	대한전선	56,250	11.7	77.7	24.6	29.0
A103590	일진전기	34,190	89.7	59.7	14.2	16.9
A000500	가온전선	48,389	75.9	85.8	32.9	49.4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8/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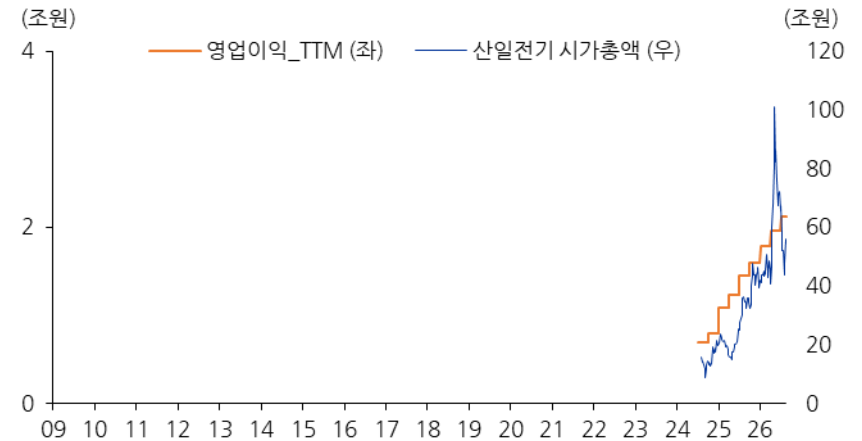
전력기기, 전선기업 ETF

효성중공업: 이익,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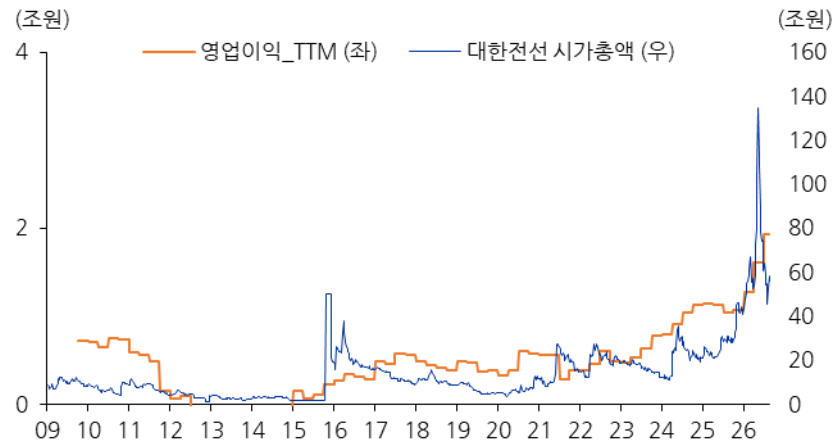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산일전기: 이익,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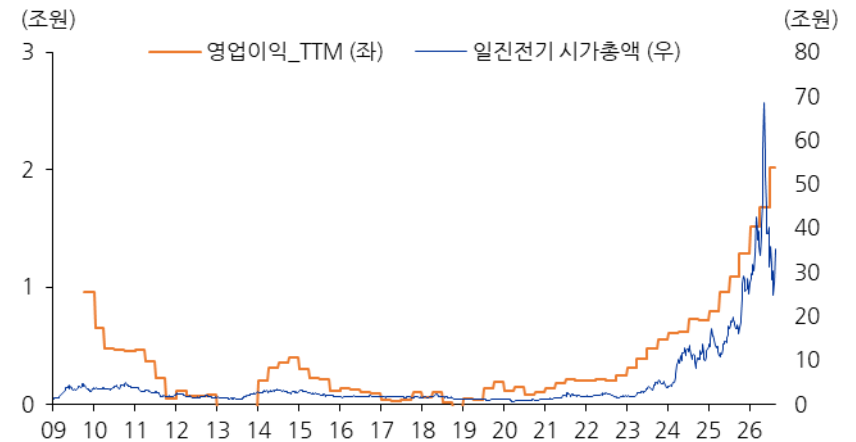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최근 4개 분기 합산(TTM) 추이. 2Q26 기준

대한전선: 이익, 시가총액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일진전기: 이익, 시가총액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